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일본이여 울지 말라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는 그 당시 거의 완벽한 도시였다. 이미 7백 년의 역사를 기록한 유서 깊은 도시였으며, 아우구스투스 시절부터 시행한 대규모의 도시 재개발로 인해 로마에 인접한 최고의 휴양도시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만 명의 인구는 도시로서 모든 요소와 조직을 갖추기에 적절한 크기였다.

포럼의 주변에는 장엄한 신전들과 공회당들이 적절한 간격으로 들어서 도시의 위엄을 과시하였고, 여기서 뻗은 도로들은 완벽하게 도시의 모든 곳을 소통시켜 주고 있었다. 도로의 표면은 대리석 돌과 타일 장식으로 화려하게 마감되어 빛났으며, 중요한 길은 마차로와 보도가 분리되어 조직되었다.

도시는 공공업무지구와 주거지구 위락지구 등으로 나뉘었고, 우물을 중심으로 모인 주거지역에는 크고 작은 집들이 섞여서 들어섰다. 집 안은 크건 작건, 아름다운 프레스코의 그림이나 모자이크타일 장식의 바닥으로 서로간에 예술적 품위를 겨루었다.

곡선으로 휘어져 후미진 거리에는 어김없이 목로주점이 있었고, 그 건너편 골목 안의 집은 하룻밤 정을 나누는 거리의 여인들이 사는 집이었다. 계곡과 이웃해서는 완벽한 형태의 노천극장에서 매일 희극이 상연되었고, 언덕너머의 경마장에서는 늘 함성이 들렸다. 놀랍게도, 도시에는 수백 명을 동시에 목욕시킬 수 있는 대중탕이 네 개나 있었다.

로마에서 휴양 차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도시는 늘 분주했고, 이로 인해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재미와 활력, 모험과 스릴이 넘쳤다. 그야말로 교역의 요충지였고 역사문화도시였으며, 휴양과 위락의 도시였다. 자연히 문화와 예술이 만발하고, 자유와 평화가 도시에 넘쳐났다. 도시의 북쪽에 위치한 베수비오 산은 마치 이 모든 번영을 영원히 지켜줄 듯 우뚝 솟아있었으니, 폼페이 시민들은 이 늠름한 산에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게 틀림없었다.

그렇게 믿었던 산이, 그러나 한 순간에 폭발하여 모든 것을 앗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불의 신을 위한 축제를 즐긴 다음날 베수비오 화산은 불덩이를 폭발해 내었다. 250도나 되는 열기가 도시를 휘감았고, 화산재는 이십오 미터 두께로 도시 전역을 덮었다. 더러는 목욕 중 발가벗은 채로, 더러는 술집과 거리에서, 더러는 공연장에서, 혹은 신전에서, 일상을 평화롭게 보내던 모든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순간을 그대로 영원히 멈추게 하고만 것이었다.

나는 십 수년 전, 이 폐허의 도시를 가서 답사하며 그 원형을 상상하고 나서 충격을 받고 말았다. 내가 믿는 이상적 도시의 모든 요소가 이미 이천 년 전의 이 도시에 다 있었던 것이었다. 너무도 완벽한 도시였다. 선과 악, 행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였고, 빈자와 부자, 낮은 자와 높은 자 등 신분과 계급이 공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도시였다.

공공은 철저히 도시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했고, 기반시설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에 완벽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정도로 인간의 자존적 지위를 과시하는 도시였을 수 있다. 그래서 멸망했을까. 결국은 자연이 이를 가만두지 않았다.

일본이 당하는 비극을 보며 이 폼페이가 생각났다. 어쩌면 폼페이가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참상일지도 모른다.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이며, 이만 명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데도, 땅으로부터 바다로부터 하늘로부터 비롯된 미증유의 참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현대세계에서 가장 진보했으며, 놀라운 자율국가 일본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 아닌가.

자연은 인간이 만든 사회나 문명보다 더 큰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숱한 자연의 혹독함 앞에서 겸손을 배우며 우리가 늘 진보해온 것도 사실이다. 역사 속 우리의 삶터가 수없이 자연의 힘에 짓이겨 졌어도, 우리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꺾지 못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도 인류는 늘 진보하였고, 멸망된 폼페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도시들을 세우며 결국 우리의 지경을 넓혀왔다. 그게 우리 인간만이 갖는 존엄이었다.

일본의 이 엄청난 비극에도 우리 인류의 아름다운 삶이 지속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의 존엄을 더욱 빛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일본이여 울지 말라. 인간의 존엄으로 딛고 일어서, 역사 속에 빛으로 오라.

〈건축가·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파업만은 안 된다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또다시 노사 갈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조가 지난 9일 쟁의행위를 결의한데 이어 17일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에 호봉 인상과 2010년 임단협 재교섭 등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불가 입장을 밝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년 내에 기 합의된 사항을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지켜야 할 평화의무 위반으로써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으로 지역민에게 근심과 우려를 끼쳤던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노사간의 갈등은 회사 회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는 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월 장기간에 걸친 노사 갈등으로 법정관리의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겨우 '숨통'이 트인 상태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와 280여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연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노조 행위에 대해 일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노사갈등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이 진행된다면 당장 타이어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돼 국내 판매망과 해외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 신인도 추락에 따라 회사 정상화는 그만큼 멀어진다.

따라서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노조가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수엑스포 준비 언제까지 계획만 할 건가

앞으로 1년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엑스포에 대한 준비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람회장 부지 조성을 비롯한 숙박시설,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지지부진해 성공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볼거리)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계획만 무성할 뿐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여수엑스포가 자칫 알맹이 없는 국내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열린 국회 여수엑스포 지원특위에서 쏟아졌다.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회간접시설 미비, 주민 이주대책, 파견 공무원 부족, 여수시의 교통문화 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여수엑스포 준비는 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엑스포 전체 공정률은 겨우 30%를 넘어선 정도다. 조직위는 올 상반기 중에 50%를 달성해 2012년 4월 개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지 조성공사의 경우 우·오수 관로 매설이 지연되고 있는 등 절대 공기(工期)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정에 맞춰 개막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주요 교통망 건설 역시 예산 부족으로 엑스포 개최 전 개통을 장담할 수 없다. 고급 숙박시설은 50%만 완공이 가능해 숙박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여수엑스포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는 여전히 답보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엑스포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로 반드시 성공 개최가 돼야 한다. 지금과 같아서는 일회성 안방잔치로 끝난 1993년 대전 엑스포의 전철을 밟기 십상이다.

조직위와 전남도, 여수시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더욱 분발해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의료 칼럼

김주엽

젊음을 되돌리자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더 젊고 세련돼 보이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특히 불혹을 넘은 중장년층은 세월이 흐를수록 처지는 눈꺼풀과 깊어지는 이마 주름에 자신감이 떨어져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고 있다.

얼굴에 발생하는 노화현상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인 줄 알면서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눈을 덮게 되면서, 처진 눈꺼풀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눈썹이나 이마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버릇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눈을 뜰 때 마다 눈썹과 이마를 과도하게 움직이면, 자연히 이마의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눈썹과 눈꺼풀의 처짐도 가속화 돼 급격히 노년의 인상으로 바뀌게 된다.

외모가 사회경쟁력인 만큼 중장년층들은 이런 노년의 인상에서 좀더 젊어 보이고, 자신감을 되찾고자 '안성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안성형 수술 중에서도 위눈꺼풀 성형술(상안검 성형술)을 통해 외모를 가꾸고 투자하는 것이 늘고 있으며, 수술 후 건강하고 활기찬 인상을 되찾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위눈꺼풀 성형술은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돌출된 눈속 지방을 제거함으로써 교정이 가능하며, 수술 후 기능적인 면의 회복뿐 아니라 인상을 젊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뛰어나 나이든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술 시 적절한 피부절제를 동반해야 하는데, 이 때 너무 젊게 보이려는 욕심으로 지나치게 피부를 절제할 경우 눈을 못 감게 돼 아프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화 정도나 전체적인 조화 등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잘 맞는 최선의 시술법을 정하는 것이며 시술은 세밀한 기법과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임상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

안성형은 안과의 세부 전문 분야로 전신의 모든 성형을 다루는 성형외과와는 달리 눈만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단순히 미용적인 수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능적인 면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 보다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안과 전문의 중에서도 눈의 성형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은 안성형 전문의들이 수술을 주로 하고 있다.

안성형에서 다루는 질환은 쌍꺼풀을 비롯한 눈의 미용성형수술, 외상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눈꺼풀의 모양이상, 안검하수, 갑상선 질환, 눈주변 부위의 종양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의 골절 및 외상, 눈물질환 그리고 의안수술 등이 해당된다.

눈은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피부도 얇고 표정 변화로 인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처짐 증세가 나타나 외모상으로 콤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다. 안성형은 전체적인 인상이 젊고 활기차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자꾸 먹는 것만 해도 속이 상할 노릇인데 이렇게 주름과 눈꺼풀이 처지면서 더 나이가 들어보이면 생활이 더욱 위축된다. 의학의 힘을 빌려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되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밝은안과21병원 원장〉

기고

윤이중

'명문' 광주 FC 도시 이미지 살린다

지난 3월 5일 광주 FC가 대구와 K리그 개막전에서 3-2 골드스코어로 멋진 승리를 함으로써 광주시민과 청소년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광주시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창단한 축구팀이 첫 출전에서 3만6000명의 열화와 같은 관중 응원에 힘입어 이룩한 승리는 광주시민의 공동체의식을 또다시 보여주는 스포츠이벤트였다.

광주는 2002년에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4강 신화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한 매우 값진 스포츠문화를 보유한 한 도시가 되었다. 또한 광주는 2009년도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에서 V10을 달성하여 야구의 명문도시가 됨으로써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종목인 축구와 야구에서 역사적인 전통과 스포츠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LA, 캐나다의 밴쿠버 등 세계의 도시들이 스포츠를 통한 도시마케팅 개발전략을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스포츠가 갖는 글로벌 기능, 시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통해 도시발전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광주 FC 창단 역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출발하였지만 연고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구단과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과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광주시민의 민주, 인권, 애향의 정신과 월드컵 4강 도시의 자긍심은 광주 FC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 갖기 운동'에 동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실천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과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광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청소년이 '시민주 갖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학부모와 교육기관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광주 FC 주주가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물론 주인의식과 존재감을 갖게 함으로써 훌륭한 리더십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FC의 창단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광주만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축구문화유산을 보존하도록 현재의 월드컵경기장 명칭을 '월드컵 4강 경기장'으로 바꾸고 그곳에 '4강 신화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문화도시의 위상에 맞게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강 신화기념관은 시민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청소년들에게는 축구문화체험장,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훌륭한 스포츠관광 매력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U대회는 광주가 문화도시, 창조도시, 스포츠관광도시임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 '시민주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광주 FC가 도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명문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전남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無等鼓

시민정신

"인류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보여줬다. 일본의 시민의식은 인류의 정신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대지진에서 보여준 일본의 철저한 대응과 일본 국민들의 침착성에 대해 격찬하는 등 전 세계 언론이 일본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희생자가 무려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지진과 쓰나미의 대재앙속에서 일본인들의 차분하고 질서있는 대응에 세계인이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대피소와 쇼핑센터, 주유소, 지하철역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등 최악의 재앙 앞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탄으로 다가온다.

큰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의 생존 본능은 법과 도덕을 쉽게 무너뜨리고 무질서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번에 일본사람들이 보여준 절제와 배려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불러 일으켰고, 최악의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는 기회로 만들었다.

피해의 현장 어디에서도 무질서나 이기적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모두 두려움을 억제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했고, 정부나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했다.

큰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국경이라는 선이 아주 흐릿한 금에 불과함을 공감한다. 지구촌 아래서 인류애로 함께 뭉치고 울고 마음을 나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안쓰러워하고 도우려 애쓴다. 여기에 일본사람들이 보여준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고 절제된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고 싶은 충동과 공감을 더해주고 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야 말로 이제껏 보지 못한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일본의 시민의식을 배워야 할 것이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

인터넷 구매 화장품 성분·유통기한 표기 안돼 불만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사면 성분과 유통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만스럽다.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없어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달 전쯤에 기능성 화장품인 여드름 치료제를 광고만 믿고 샀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화장품 자체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면 나에게 안 맞는 제품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이런 사례의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 사이트에서는 성분표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쇼핑몰에서는 성분표시나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모든 화장품에 성분 표시제가 의무화돼 광고에 관련정보를 법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도 하루빨리 성분 표시제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아현·광주시 북구 연제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